

‘코로나의 역설’ 학업 포기 학생 줄었다

등교 감소로 스트레스 줄어들고 해외유학 감소한 탓 광주·전남 지난해 1863명 중단...전년대비 30% 줄어

광주·전남지역에서 2600여명에 달하던 학업 중단 초·중·고교 학생 수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800여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으로 인해 등교 일수와 교사들의 지도가 줄어들어 학생 관리가 상대적으로 부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업을 포기한 학생 수는 코로나 이전 보다 크게 감소한 ‘코로나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상당수 학생과 학부모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학생들은 도리어 등교에 따른 다양한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1년 과정을 무리 없이 마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인한 등교 일수 감소 등이 일부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학교 부적응 학생이나 학업 부진 학생 등에 대한 새로운 교육과 지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광주와 전남에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학생이 전년 대비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등교 일수가 감소하면 서 학교 부적응 학생은 물론 해외유학도 큰 폭 감소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광주·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학업 중단 학생은 총 915명이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 309명·중학교 151명·고등학교 455명이다. 이는 전체 학생 대비 0.52%에 해당하는 수치

다.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에는 초등학교 458명·중학교 189명·고등학교 741명 등 총 1388명(전체 학생 대비 0.77%)의 학생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했다.

지난해 전남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초등학교 220명·중학교 127명·고등학교 601명 등 총 948명이었다. 전체 학생 대비 중단율은 0.51%이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는 초등학교 307명·중학교 199명·고등학교 796명 등 총 1302명(중단율 0.67%)이 학업을 포기했다.

학생들의 학업 중단 사유는 질병이나 가정 상황·부적응·해외 유학·대안교육 등 다양하다.

지난해 학업 중단 학생이 대폭 감소한 주된 이유는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등교 일수 감소라고 시·도교육청은 밝혔다. 학업 중단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 부적응 사례와 해외 유학이 등교 일수 감소와 코로나의 영향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설명이다.

실제 전남지역 통계를 살펴보면 2018년도 학업

중단 사유 중 학교 부적응 427명·해외유학 313명 등 두 항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19년도 역시 학교 부적응 413명·해외유학 302명의 비중을 보였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의 경우 학교 부적응 247명·해외유학이 133명까지 줄었다.

시·도교육청은 학교 부적응 또는 학업중단위기 학생들에게 학업 지속 기회를 지원하고 있다. 대안교육 위탁이나 맞춤형 치유·상담, 학업중단수려제 시행 등이 그것이다. 수려제는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일정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치유, 학습지도 등의 프로그램도 지원해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다.

광주 A중 학부모 김모(40)씨는 “공부에 아예 취미가 없거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까지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버티는 방식의 교육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면서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일반 학생들과 다른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온라인 ‘일자리 매칭데이’ 광주 북구, 내달 10일까지

광주시 북구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고용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북구는 지역 청년들에게 보다 다양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음달 10일까지 ‘당신의 내일을 두드려주세요! 두드림(Do! Dream!)! 2021 광주 북구 일자리 매칭데이’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전력공사, 오이솔루션, 트로닉스, 현진기업 등 총 80여 개의 지역 4차 산업 선도 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한다.

구직자는 ‘광주 북구 일자리매칭데이 전용 홈페이지’(http://jobfair.incruit.com/gwangjubukgu)와 ‘광주잡넷’에서 채용정보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등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구인기업과 취업 연계가 가능하다. 특히 네이버, 한국철도공사 등 대기업 및 공공기업의 취업정보와 현장 직원의 직무 경험을 알려주는 라이브 직무토크쇼가 진행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자치경찰 최우선 사무는 생활안전·범죄예방”

전남도민 2306명 온라인 설문서 51%로 최다...시급히 근절할 범죄는 ‘학교폭력’

전남도민 2명 중 1명은 향후 3년간 안전을 위해 가장 많은 투자가 필요한 자치경찰 사무로 ‘생활안전 및 범죄예방 활동’을 꼽았다. 또 시급하게 근절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9월 1일부터 2주간 전남 자치경찰에 바란다’ 도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설문에는 도민 2306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자치경찰 3대 사무 중 우선 추진 사무

를 묻는 질문에 ‘생활안전 및 범죄예방 활동’이 1178명(51.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회적약자 보호활동’ 793명(34.4%), ‘교통안전 활동’ 334명(14.5%) 순이었다.

도민 생활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장소로는 ‘주거 지역’ 646명(28%), ‘유흥·변화가’ 588명(25.5%) 등이었다. 지역별로 농촌지역은 주거지역을, 도시중심지역과 여촌·섬지역은 유흥·변화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지역별 맞춤형 생활안전 치안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범죄예방 활동으로는 ‘CCTV 설치 등 범죄 예방 시설 설치’가 1029명(44.6%)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관의 순찰 강화’가 595명(25.8%)으로 뒤를 이었다.

교통안전 위협 요소는 ‘이륜차 법규위반’ 909명(39.4%), ‘도민의 교통법규 위반’ 755명(32.7%) 순으로 응답했다. 또 가장 시급하게 근절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가 973명(42.2%)으로 가장 많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가을이 우수수
광주시 서구청 직원들이 27일 오후 금호동 일대의 은행나무 가로수에 매달린 은행 열매를 진동수확기를 이용해 털어내고 있다. 작업은 오는 11월1일까지 서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이어진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17년 축적’ 암데이터 유전체 분석 플랫폼 구축

화순전남대병원, 시설·장비 구축에 2023년까지 150억 투자

화순전남대병원이 개원 이래 17년간 축적한 고순도 암 데이터의 유전체 분석 플랫폼을 구축한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최근 정밀진단 플랫폼 전문기업 엔젠바이오와 클라우드 기반 유전체 분석 플랫폼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 정밀의료 산업화 지원 플랫폼 구축 공모 사업’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엔젠바이오는 화순전남대병원의 임상 데이터 분석과 정밀의료 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 임상 유전체 분석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플랫폼은 17년간 축적해온 화순전남대병원의 방대한 암 데이터에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데이터를 분석한다.

나아가 임상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유가 가능한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개발한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이 플랫폼을 통해 맞춤형 암진단 치료법, 맞춤형 정밀의료 서비스,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산업화, 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앞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150억원 규모의 ‘첨단 정밀의료 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는 환자마다 다른 유전적·환경적 요인과 질병경력·생활습관 등을 사전에 파악해 최적화된 치료법을 제공하고, 질병의 예측·예방까지 계획적으로 관리·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교육청-공무직노조 단체협약 잠정 합의

전남도교육청과 교육공무직노조가 향후 2년 반 동안 유효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전남도교육청은 노·사 양측이 2019년 11월 25일 단체교섭 상견례를 가진 이후 1년 10개월 동안 70여 차례 교섭을 진행한 끝에, 최근 총 148개 조항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은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근로시간 보장과 저출산 해소를 위한 근로조건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교육공무직 과원 해소를 위한 전보·교류 인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돌봄전담사의 근로시간을 확대하고, 방학 중에도 점심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리사 근로일수를 확대한다는 데 합의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행복이벤트

파워정기예탁금 I형, II형

12개월 연 1.7% 세전 / 만기해지

18개월 연 1.77% 세전 / 만기해지

2020년도 출자금 배당을 2.97%

출자금은 예금보통예대상이 아니고 조합 경영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출자금 배당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2) 이 금융상품을 계약 하시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예탁금 및 저축은 신협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4)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가능합니다.
- 5)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 6) 금융상품 관련 상담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탁 영업점 및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등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1명

2등 LG퓨리케어 공기청정기 2명

3등 제주도 2박3일 숙박이용권 5명

4등 키친아트 에어프라이어 15명

5등 테팔 세프드프랑스 프라이팬 100명

※ 제세공과금(22%)은 당 신청이 부담하며, 경품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탁영업점 및 홈페이지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본점 266-4150 (광주 북구 문흥로 38)

매곡지점 572-4150 (북구 설죽로 31번길1)

양산지점 573-4150 (북구 양산로 59)

침단지점 576-4150 (북구 침단안로9번길29-2)

운암지점 528-4150 (북구 북문대로 88)

동광주지점 264-4150 (북구 동문대로 187)

동림지점 513-4150 (북구 북문대로 238)

각화지점 263-4150 (북구 동문대로 283, 285)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신협중앙회 심의필 제2021-6호(2021.05.28.) 유효기간 2021.12.31.까지